

‘버티는 힘’이 강해야 ‘이기는 힘’도 생긴다

프로야구 개막 한 달...데이터로 짚어본 KIA 현주소

막강 ‘원투 펀치’ 네일, 울러 든든...김도영 주축 타선도 견제 최다 블론세이브·공격의 맥 끊는 병살타 남발 상승세 ‘발목’ 불펜 보완·득점권 연결력 강화, 상위권 도약 필수 전제조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시즌 한 달을 5할 승률로 마쳤다. 버티는 힘은 있지만, 치고 올라갈 동력이 필요하다.

27일 기준 KIA는 25경기 12승 12패 1무, 승률 0.500으로 5위다. 선두 KT와는 45경기 차, 상위권과의 간격을 좁히지도, 하위권과 격차를 벌리지도 못한 채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공격은 나쁘지 않다. 팀 타율 0.261, OPS 0.740. 홈런 21개로 장타력도 갖췄다. 중심 타선의 역할도 준수하다.

김도영이 8홈런으로 리그 선두에 올라서며 장타 생산을 이끌었다. 김선빈도 타율 0.309, 득점권 0.348로 타선을 지탱했다. 나성범은 득점권 타율 0.412로 승부처에서 힘을 보였다.

문제는 연결이다. 득점권 타율은 0.282로 리그 4위다. 수 치만 보면 나쁘지 않다. 하지만 병살타

(26개)는 리그 최다 수준이고, 잔루(194개)도 많다.

이닝별 득점은 1-3회 44점, 4-6회 37점, 7-9회 41점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다. 꾸준히 점수를 만들지만, 병살과 잔루로 공격 효율이 다소 떨어진다. 특히 카스트로는 타율 0.250으로 외국인 타자 가운데 중위권 수준이다. 중심 타선의 무게를 기대만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마운드는 구조가 더 분명하다. 선발은 버틴다. 선발 평균자책점 3.85로 리그 5위. 올리는 5경기 4승, 평균자책점 0.81로 리그 최정상급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네일도 피안타율 0.221, WHIP 1.00으로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인다. 경기 초반은 계산이 선다.

하지만 뒤는 아직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불펜 평균자책점은 5.23으로 리그 7위, 팀 평균자책점도 4.50까지 밀렸다. 블론세이브(5개)도 리그 최다다. 앞에서 만든 분위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KIA 타이거즈 막강 원투펀치 네일(왼쪽)과 울러



(KIA 타이거즈 제공)

마무리 성영택이 6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버티는 건 위안이다. 1군으로 올라온 정해영의 회복 여부도 변수다.

도루는 활발하지 않다. 25경기에서 11개에 그쳤다.

도루 성공률은 78.6%로 나쁘지 않지만, 상대 배터리를 흔들 만큼의 압박은 크지 않다. 공격이 정제될 때 분위기를 바꿔줄 카드로는 아직 제한적이다. 다만 땅볼 등 타구 상황에 따른 주루 RAA(Runs Against Average)는 2.75로 리그 2위다.

추가 진루 확률과 RS%(Run Scored Percentage, 주루 득점 확률) 역시 상위권이다. 도루는 적지만, 베이스리닝 자체의 효율은 높다.

홈과 원정 성적은 엇갈렸다. 홈에서는 7승 3패 1무로 강했지만, 원정에서는 5승 9패로 기록을 보였다. 최근 경기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 10경기 4승 5패 1무로 뚜렷한 반등은 없다. 주말 홈에서 2승으로 연패를 끊었지만 상승세로 보긴 어렵다.

한 달이 지난 시점, KIA의 색깔은 뚜렷하다. 선발은 상위권, 타선은 평균 이상, 불펜은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다.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 완성도를 끌어올릴 여지는 충분하다. 불펜 안정과 득점권 연결력이 맞물린다면, 5할 승률에서 벗어나 상위권 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 /주홍철 기자

수문초, ‘육상 명문 도약’ 새로운 꿈 꾸다

여자 육상 400m ‘간판 스타’ 한정미 수문초 지도자 변신 “아이들과 함께 더높이, 더 멀리 날고 싶어”

광주 육상 육상학교인 수문초가 육상 명문학교 도약을 향한 나래를 폈다.

2013년 육상부를 창단한 수문초는 그동안 육상 꿈나무를 발굴·육성해 광주체육중, 광주체육고에 엘리트 선수를 배출하며 육상 선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3월 국내 여자 육상 400m ‘간판 스타’ 한정미가 수문초에 등지를 틀며 수문초 육상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화려했던 선수생활을 뒤로하고 지도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한정미는 수문초 육상부에서 6명의 학생을 가르치며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지도자로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는 5월 열리는 소년체전에 3명의 선수를 출전시키며 지도 역량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 소년체전에는 100m 정승현, 포환던지기 박소현(이상 6년), 80m 이지현(4년)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정미는 “어린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즐겁게 육상에 대한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며 “눈앞의 성적이나 꾸준함으로 오래 갈 수 있도록 동기 부여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육상팀 핵심 멤버로 2023년 여자 육상 400m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4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2024년 혼성 계주 한국신기록 주역으로 우뚝 섰던 한정미의 경험은 이제 수문초 꿈나무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고



‘트랙 여제’에서 수문초 육상 지도자로 변신한 한정미가 28일 수문초에서 육상부 선수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있다.

한정미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렸던 선수 시절의 한정미가 아닌 이제 지도자로 아이들과 함께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려고 한다”며 “선수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올바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문초 육상부의 변화에 학교와 학부모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박민숙 수문초 교장은 “한정미 지도자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지도로 육상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아이들이 육상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 인성을 겸비한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육상연맹도 김민주 회장 취임 이후 육상학교와 소통을 강화하며 선수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민주 회장은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육상은 꿈나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초·고교 연계 육상 시스템의 뿌리인 초등학교 육상팀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시육상연맹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슈퍼 루키’ 김민솔, 초대 챔프 정조준

제1회 DB 위민스 챔피언십 30일 개막

2026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여섯 번째 대회인 제1회 DB 위민스 챔피언십이 30일부터 나흘간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신설 대회인 DB 위민스 챔피언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메이저대회 한국 여자오픈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던 DB그룹이 주최하며, 총 120명의 선수가 출전에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회엔 지난해 탁신EPC 챔피언십 우승자인 이예원이 결장하는 가운데 임진영과 고

지원, 김민솔, 2003년생 김민선이 올 시즌 첫 우승을 노린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슈퍼 루키’ 김민솔이다.

김민솔은 최근 3개 대회에서 우승 한 차례, 공동 3위 한 차례를 기록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시현은 이번 대회를 통해 데뷔승에 도전한다. 그는 풀타임 출전한 지난 시즌 준우승 2차례를 기록했고, 올 시즌엔 5개 대회에서 공동 2위 한 차례와 공동 3위 두 차례에 오르는 등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지난 12일 열린 KLPGA 투어 iM금융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민솔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LPGA 제공)

지난 시즌 상금왕 홍정민과 대상 수상자 유현조도 시즌 첫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시설 개선’ 첨단파크골프장·대상파크골프장, 오는 30일까지 임시 휴장

‘편의성 높이고, 이용자 안전 강화’

첨단체육공원 내 첨단파크골프장과 대상파크골프장 시설개선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임시 휴장한다.

광주시체육회는 28일 “지난달 10일부터 휴장 기간 동안 전문적인 잔디 관리, 코스 정비와 함께 임시화장실, 그늘막 쉼터, 위험 구간 안전망을 신설했다”며 “기존 쉼터 보수, 휴겉 교체, 목재의자 추가 설치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시체육회는 5월1일 재개장을 앞두고, 주 이용층인 어르신은 물론 최근 이용이 급증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대상파크골프장 후문 인근에 임시화장실을 긴급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해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가 운영 중인 첨단체육공원 파크골프장과 대상파크골프장은 다양한 난이도의 9홀과 18홀로 조성됐다. 쾌적한 환경과 뛰어난



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파크골프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 2만4천377명의 이용객이 다녀갔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첨단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활체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와 파크골프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배드민턴, 2027년부터 ‘15점제’ 도입

‘뒤틀림’ 강한 한국대표팀도 새 제도에 맞춰 ‘새 판 짜기’ 돌입

배드민턴이 20년 넘게 굳어진 ‘21점제’의 문법을 버리고 15점제로의 대전환을 선택했다.

경기 운영의 근간이 바뀌는 만큼, 탄탄한 체력과 뒤틀림을 앞세워 상대를 옥죄던 한국 셔틀콕의 필승 전략에도 대대적인 ‘새 판 짜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지난 28일 열린 경기 총회에서 새로운 점수 체계인 ‘15점 3게임제(3x15)’ 도입 안건을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부터는 매 게임 15점을 먼저 얻는 쪽이 승리하는 새 방식이 전면 시행된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전 세계 배드민턴계의 경기 전략에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게임당 점수가 21점에서 15점으로 6점이나 줄어들면서, 초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긴 호흡의 전술보다는 처음부터 코트 주도권을 틀어쥐는 초반 화력전이 승패의 핵심적인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 대표팀에게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과 남자 복식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 등 우리 선수들은 강한 체력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 후반 상대를 무너뜨리는 ‘뒤틀림’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 호흡이 짧아지면서 특유의 끈질긴 경기 운영이 위력을 발휘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장의 지도자들은 변화에 따른 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주봉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은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 등은 주로 후반에 승부를 뒤집는 스타일인 만큼, 훈련 방식에 변화를 줘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15점제 도입으로 견제가 심해질 수 있겠지만, 안세영 등 우리 선수들이 정상에 있는 이유는 특정 방식 덕분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 때문”이라며 “선수들은 새 제도에 맞춰 전략을 수정할 능력이 충분하며, 단순히 시동이 늦게 걸리는 것이 아닌 만큼 빠르게 적응해 성적을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합뉴스